전남도, 순천 선월지구에 코스트코 유치… 광주·전남 최초

신규 입점 위한 1천20억 원 투자협약… 동부권 주민편익 증진·상권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코스트코코리아-전라남도·순천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순천시 선월지구에 신규 입점을 위한 1천20억 원의 투자협약(MOU)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코스트코코리아는 2028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선월지구에 연면적 4만 6천734㎡ 규모의 대형매장을 조성하고, 25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광주, 전남 최초로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서면 전남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향상,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순천시, 코스트코와 협의해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지원 강화 대책도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단순한 유통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전남은 물론, 전북·경남권까지 아우르는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제15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등 3건 심의·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9월 29일 청사 상황실에서 제151회 조합회의 임시회(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과 행정 집행 전반을 점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개발사업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시책 추진의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조합회의에서는 율촌제Ⅰ산단 정수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및 청원경찰 복무·징계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정수장 방호 안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정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모두가 합심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주요 현안 해결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매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추석연휴 전국 15개 공항 이용객 526만명… '특별교통대책' 시행

전국14개 공항 여객 281만명… 인천공항 이용객 245만3000명 역대 '최대' 전망

올 추석연휴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하는 인파가 526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추석연휴는 개천절(10월3일)과 추석연휴(8~9일), 한글날(9일)이 겹쳐 10월10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2일부터 12일까지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올 추석연휴기간 전국공항에 281만명(국내선 206만명, 국제선 7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1만5745편이 운항된다.

이는 하루평균 1431편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일일 평균 여객은 2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김포공항 내달 2일, 김해공항 14일, 제주공항 8일에 공항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항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객 서비스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전국공항 주차장 혼잡완화를 위해 임시주차장 5987면을 확보해 추석연휴 기간동안 김포 7667면, 김해 5735면, 제주 3394면 등 총 3만552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항별 주차면은 김포공항 1888면, 김해공항 399면, 제주공항 1143면, 청주공항 1217면, 대구공항 572면 등이다.

공사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전국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계획이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추석 연휴기간 공항 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도 올 추석 황금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45만3000명으로 예상했다.

연휴기간 인천공항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22만3000명으로 역대최대였던 올 하계성수기(하루 21만8000명)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은 이번 추석연휴기간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3일로 23만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 역대 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내달 3일이다. 이날 인천공항의 출국자수는 12만9000명으로 예측됐다. 반면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12일로 12만4000명이 귀국한다.

공사는 1일부터 자회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비해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해 여객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운항 등 정상적인 공항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뉴시스

광주 전통시장 11곳,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0월 1일~5일 최대 4만원… 농축산물 5곳·수산물 9곳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광주지역 11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말바우시장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시장'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송정매일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5개소에서 열린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대인시장연합,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9개소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는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예를 들어 5만원 어치를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말바우, 무등, 양동전통시장연합)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192억 원… 역대 최대 규모

관광업체 경영 안정 지원·관광산업 활로 열기 위한 지원책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30개 업체(110억 원)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개 업체를 선정해 8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됐다. 총 19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저인 1%가 적용된다. 융자 금액은 시설 신·증축 및 노후 시설 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미경 관광과장은 "관광산업은 전남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고금리·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많은 관광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융자 지원이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업체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길 기자